





## 1) 들어가기

프랑스어(French language)는 로만스어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그 이름은 자국인과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지는 그리고 비록 똑 같은 효율은 아니지만 프랑스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이해되고 그리고 사용되는 표준 문어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어(French)는 많은 방언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중세 이후로 점점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어 지금은 단지 변두리 말(patois)일 뿐이다.

프랑스어는 영어와 동일한 (라틴) 알파벳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떤 문자들은 구별 부호들과 함께 제공될 수 있으리라. 모음들은 엑큐트 엑센트(é) 또는 그라브 엑센트(è, à) 또는 서컴플렉스 엑센트(â, ê, î, ô, û)를 지닐 수 있으리라. 스펠링 é는 (영어 “bait”에서처럼 그러나 이중모음적인, 미끄러지는 결과 없는) 소위 단힌 발음이며, è와 ê는 (영어 bet에서처럼) 열린 발음이다. 다른 엑센트 표시들은 어떤 화자들이 서컴플렉스 모음들을 길게 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음 발음을 의의있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e와 i 이외의(e와 i 앞에서 그것은 s로 발음된다) 다른 모음들 앞에서 k로 발음되는 c는 ç라고 쓰여지는 cedilla에 의해서 s 소리로 바뀌어질 수 있으리라. 프랑스어 정서법은 전적으로 음성학적이 아니며, 발음은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와 러시아어와 다른 언어들에서처럼 스펠링 만으로부터는 선명하지 않지만, 거의 스펠링과 [비슷]하다. 프랑스어 정서법은 영어처럼 거의 그렇게 예측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어는 본국(metropolitan, 本國) 프랑스에서 약 사천오백 만 명의 사람들의 자국어이다. (모국인과 비 모국인) 약 이백오십 만명의 화자들은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자과 거주 외국인들이며 그리고 대략 오십 만명의 프랑스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 [해외] 영토(possessions, 領土)에 거주하는 약 사천 이백만 명의 사람들 중의 약 13%—이 퍼센티지는 서 아프리카 프랑스 영토에서의 2%에서부터 Martinique에서의 95%까지 다양하다—가 프랑스어로 말한다. Canada 거주인들의 약 사분의 일이, 주로 Quebec 주에서, 프랑스어로 말한다. 20 세기 중반 미국에는 프랑스에서-태어난 십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2 개 국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로 말할 줄 아는 미국 내 화자들은 주로 Maine와 Louisiana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들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는 Belgium과 Switzerland의 공식 언어들 중의 하나이다.

//로마제국 창조기에 라틴어로 말하는 자들에 의해 점령된 많은 지역들 중에서

주로 Celts에 의해서 점령됐던 그리고 그 이후에 Gallia(후에 ‘Gaul’)로 알려진 큰 지역이 있었다. Gallia Transalpina(알프스를 너머의 골)의 그 주요한 부분이 Switzerland와 Belgium의 인접지역과 더불어 함께 현대 프랑스를 포함한다. 그래서 비록 Celtic이 수 세기 동안 몇몇 부분들에 생존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이 라틴어로-말하는 지역으로 됐으며 그리고 확실히 라틴어가 지역적으로 발전하는 길에 영향을 미쳤다. 제국에 조성됐던 사회 결속력들이 감소되면서, 많은 다양한 중방언 그룹들이 점 점 증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들이 현대 로만스 언어들들의 선조들이다(Harris & Vincent 1988). 그 땅 북쪽의 주요 게르만 침입자들인, Franks 라는 이름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이름인 France 안에 두 개의 주요한 방언 그룹이 돌출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북부와 중앙 프랑스를, 다른 하나는 남부를 덮고 있었다. 이것들이 각각 그것들의 ‘yes’(예)에 해당하는 특별한 낱말 *oïl* (>*oui*)와 *oc*로부터 온 *langue d’oïl*[오이 언어]와 *langue d’oc*[오 언어]로 알려진다(아래 지도1 참조).



로만스어의 후자 oc 언어 형식이 중세 Provençal(프로방스 어)와 그리고 남부 프랑스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현대 Occitan 말투(patois) 이 양자 언어를 일으킨다. Langue d' oil 방언들 중의 하나—Île de France와 Paris의 방언인 Francien—가 결국 프랑스의 표준 언어가 된다. ‘Gallo-Romance’라는 용어는 가장 이른 현존 텍스트, 기원후 842년 Strasbourg 맹세들 이전 기간을 지시하는 데에 사용된다.

[서] 로마제국의 끝을 표시하는 언어 분화 과정은 프랑크(Frankish) 지배 하에 세도 계속됐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그 두 폭 넓은 언어 그룹들 각각 안의 다양한 방언들이 발전됐다(그 주요 방언들의 이름이 윗 쪽 지도1에 나타난다). 영어 발전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그 Channel Islans에서 지금 말해지는 지방 프랑스어 형식을 산출시켰던 Norman은 북부 방언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특별히 애호됐던 것은 **Francien**이었기에, 국가 언어의 토대로서의 그것의 궁극적인 도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단 왕의 궁전이 빠리에 고정되자 법과 교회와 교육 체계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됐다. Francien은 점차적으로 12세기와 13세기 지나면서 글쓰기의 규범이 됐으나, 그것이 북쪽과 남쪽 양쪽 프랑스 대부분에서의 규범적인 형식의 일상어(casual speech)가 됐던 것은 19세기와 20세기 이전은 아니었다(Rickard 1974).

**French**는 프랑스에서의 약 오천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리고 Belgium과 Luxembourg와 Switzerland와 이탈리아 북부의 the Val d'Aosta에 살고 있는 6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첫 번째 언어로 말해진다. Canada는 Québec 주에 배타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 약 6백만 명의 프랑스어로 말하는 주민(francophones, 2개 국어 이상의 공용어가 있는 나라에서 프랑스어로 말하는 주민)을 지닌다. 그리고 New England에는 백만명이 있고 Louisiana에는 다른 백만명이 있을 것이다. 덧붙혀, 예를들어 the West Indies와 the Indian Ocean의 많은 섬들에서처럼, 자주 본국의 규범과 그리고 하나 이상의 토속어들과 경쟁하고 있는 프랑스에 토대를 둔 많은 Creoles(크리올 어: 주로 유럽의 언어와 비유럽계 언어와의 접촉에 의한 혼성어로서 모국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French)는 한 때 프랑스 식민지였던 Arab과 Black Africa의 독립국가에서 그 자신 두 번째 언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지역, 예를들어 Vietnam 또는 Lebanon과 같은 나라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은 두드러지게 쇠퇴했다. 전반적으로 보아, 프랑스어는 무엇보다 영어와의 격렬한 경쟁에 직

면하여 세계 언어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여태까지 대부분 유지해 왔다: 단지 시간만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해 줄 것이다(Valdman, 1979).//

## 2)역사.

(폭 넓은 의미에서) 프랑스어의 본토는 (기원전 122년에 로마가 댔던 Provincia, 지금의 Provence를 제외하면) 기원전 1 세기 중반에 Caesar에 의해 정복된 로마 **Gallia**(Gaul) 속주이다. 그것은 대부분 현대 프랑스에 상응한다. 라틴화 이전의 그 땅은 주로 비록 Aquitania (현대 Gascogne)에 그리고 Riviera의 몇몇 지역을 따라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Iberian과 Ligurian 이라고 각각 불리워지는 다른 언어들이 말해지고 있었지만, **Celtic** 말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어떤 다른 알려진 언어와 자신있게 연결될 수 없는 현대 Basque가 Iberian의 계승이 아닌 한, Iberian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Ligurian은 지리학적인 이름 그 이상이 거의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들 이전에 지중해 해변을 따라 정착촌들을 지녔다. 이것을 위한 언어학적인 증거가 Riviera의 지방 이름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Nice<Nicaea (Greek Nikeia); Antibes < Antipolis; Port-Vendres < Portus Veneris, 초기 그리스어 이름 Aphrodisias의 라틴어 번역. 이런 그리스어 기층은 다른 방식으로는 추적 불가능하다. 그러나 **Celtic**으로부터의 언어학적인 유산은 프랑스에서의 지명에서 뿐만 아니라(Lyon < Lugdnum; Verdun < Virodunum; -ac, -ai, -i로 끝나는 이름들), 그것들 중 몇몇(약 180 개)가 전형적인 갈리아 라틴어와 단지 프랑스어일 뿐인 많은 수의 낱말들로 확장됐다. 빈약하게 포착되지만 갈리아의 Celtic은 통일된 언어가 아니라 여러 방언들로 말해졌다(확실히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나누었던 *parte tres*(세 부분)에 상응하는 세 가지 이상의 방언이 있었다). 비록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강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라틴화는 급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됐으며, Celtic 방언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그리고 거의 드물게 글로 쓰여졌다: 라틴어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진보된 강한 정복자들의 어법(idiom, 語法)의 심리학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장점들을 사용했다. ( 국제적인 프랑스어에 의해 행사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Brittany의 Breton 언어는 초기 중세에 Britain으로부터 갈리아의 토속말이 아니라고 보고된 Celtic이다.)

비록 그 증거가 결여됐기는 해도, 로마제국의 말해진 그리고 글로쓰여진 Latin Lingua franc의 바깥에 갈리아 의 다양한 지역의 말해진 라틴어가 Celtic 기층의

방언적인 다양함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안전하게 추측될 수 있다. **바로 이것들이 돌출하는 로만스 방언들의 토대였다.**

평화와 번영의 기간 이후에, 갈리아는, 약해지는 [서]로마 제국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특히 게르만족들에 의한 외부 침략에 복속됐다. 5 세기 과정 주에 서고트(visigoths) 족이 그 남쪽에, Burgundians이 Rhône 계곡 지역에, Saxons이 그 해협과 대서양 연안을 따라(색슨 족들은 곧 Britain으로 이동했다) 정착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연적인 사건은, 독재적으로 북쪽에서의 그 로마 속주를 유지하면서 그 제국을 침입자들로부터 격리시켰던 로마인 지배자 Syagrius 왕국을 486 년에 자신들의 왕 Clovis 하에서 없애버린 **Franks**이었다. 프랑크인들은 서고트 족을 물리치면서(507) 부르군디아 왕국을 흡수했다(534). *클로비스는 스스로 세례를 받았으며, 프랑크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됐다 그리고 라틴어를 자신들의 새로운 언어로 획득했다.* 그들은 약 200 개의 게르만어를 라틴 어휘에 전했다 그리고 분절발음하는 그들의 습관들은 갈리아의 로만스어에 어떤 전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특히 모음들의 이중모음화—아래를 보라).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의 언어적인 영향은, 비록 갈리아에서의 다른 게르만인들의 그것보다 더 크기는 했지만, 작았다. 그러나 France(Francia)는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빚졌다.

Merovingians, Clovis 왕조는 게르만 관습에 따라 상속자들에게 그 국가를 나누어 주었으나, 그 땅의 점진적인 분할은 그 군주권력을 약화시켰다. 7 세기부터 본디 그 왕계(royal bousehold, 王系) 첫 공직자인 maior domus(“ mayor of the palace”)그 궁전의 주인은 그 왕국의 재상 또는 통치자의 직무들과 힘들과 같은 어떤 것을 빼앗기 시작했다. 그들중의 하나인, 그 왕국을 무슬림의 정복으로부터 구한(732년 Poitiers 전투) Charles Martel(찰스 마르텔)이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기 전까지 말이다. 마르텔의 아들 Pepin the Short이 현실적으로 751년에 왕위에 올라, 그들 중에 Charlemagne(768-814, 샤를마뉴)가 가장 탁월했던 Carolingians의 왕조를 세웠다. 샤를마뉴 하에서 다소 과장됐지만, 정치적이고 교회적인 목적을 위해, 고전 라틴어를 되살리려는 때이른 그리고 대부분 덧없는 시도를 포함했던 카로링거 르네상스 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것이 발생했다. 샤를마뉴 자신이 800 년에 “Roman” 황제 라는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Cicero의 라틴어는 군주적인 법령에 의해 사라졌고 되살려질 수 없었다. 사실 고전적인 표준들로의 귀환은 심지어 그들의 라틴어가 시간의 경과와 그리고 Celtic 기층과 게르만의 상층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아주 다른 언어로 되버렸던 보통

사람들로부터 라틴어를 분리시켜 버렸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는 단지 그 이전의 형식에로의 복종에 있어서만 라틴어라고 불리울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인정한 교회는 Tours(813년) 공의회를 통하여 설교를 위해 “시골의” 그리고 “세속적인” 토속어들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결과 각자는 (그들중 많은 자들이 어찌든 빈약한 라틴주의자들이었던) 사제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실제로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명성에 도달하고 그리고 곧, 비록 학습의 내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글쓰기로 환원되는 새로운 언어가 고대 프랑스어(Old French)라고 불리울 수 있으리라. *가장 오래된 이용 가능한 텍스트*는 샤를마뉴의 두 손자 Louis the German과 Charles the Bald가 그 제국의 분할에 대한 싸움에서 세 번째 손자 Lothair에 맞서기 위한 연합 서약인 Strasbourg(842)의 맹세들 이라는 텍스트이다. 역사가 Nithard에 의해 보존된 이런 맹세들은 독일어와 프랑스어 두 개의 언어로 선언됐으므로 어느 쪽의 사람이든 충분히 그것들의 낱말들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쓰여진 첫 번째 재원은 어떤 감각에서든 프랑스어의 탄생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갈리아 말의 연이어진 기록되지 않은 발전에 의해서 앞설 것이기 때문이다.

연이어진 고대 프랑스어 텍스트들은 모두 문학적인 것들이다: Cantilène de sainte Eulalie(880), Passion de Christ, Vie de Sanint Léger, 그리고 예언자 Jonas에 관한 설교 단편(모두 10세기), 이것들에 이어 다양한 방언들로 된 아주 만개한 문학이 잇따른다.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11세기 중엽에 샤를마뉴의 조카 (또는 그래서 그는 Chanson에서 확인된다) Roland의 무슬림들에 대한 전투와 Roncesvalles에서의 그의 죽음에 고나해 이야기하고 있는 Chanson de Roland이다.

9세기와 10세기에 약탈을 일삼는 Vikings이 프랑스 북서부를 괴롭힌다. 그들은 결국 달래졌고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들은 (그들이 이미 정복했던) 땅이 그들에게 배정됐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그리고 그들은 그로부터 로마화됐다. 이러한 북쪽사람들 또는 Normans(노르만인들)은 Normandy의 주에 자신들의 이름을 주었다. 1066 년에 영국을 침입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거기에 가져간 그들은 설령 영국의 로마화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로만스어가 그 기원인 영어 어휘 50% 이상의 부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987년 마지막 카로링거 왕족(Carolingian)의 죽음 후에, Hugh Capet가 왕위에 오르게 됐다. 그와 그의 계승자 아래에서 비록 군주적인 힘이 Île-de-France에 복구됐지만 전체로서의 프랑스 행정의 탈 중심화와 그리고 샤를마뉴 죽음 후에



시작됐던 많은 유사-독립적인 날개들로 그 나라가 갈라짐은 계속됐다. 봉건주의가 만개했다. 언어적인 결과는 그에 어울리는 언어적인 분열이며 많은 방언들로 된 문학의 발전이었다. 그것들의 증거로, 보다 후의 그리고 현행의 말투(patois)에 관한 얇은 의해 지탱되는 방언들에 관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ㄱ)동부—Bourguignon, Franc-Comtois, Lorrain, Champenois; ㄴ)북동부—Picard, Wallon; ㄷ)북서부—Normand; ㄹ)서부—Poitevin, Angevin, Saintongeais; ㅁ)북-중앙(Île-de-France)—**Francien**.

다른 언어들과 구분 분리된 언어라고 불리울 정당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Franco-Provençal 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어법(idiom, 語法)이 남동부, 대략 전자의 Burgundian 왕국을 덮는 곳에 존재한다. 그것은 French와 그리고 나머지 프랑스에서 말해지는 Provençal 언어 라는 명칭 하에 포섭되는 남부의 다양한 방언들 사이의 중간적인 위치를 여러 측면에서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붙혀진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Francien**이 점차적으로 표준말 투(patois)가 되는 다른 어법들과 함께, 프랑스의 표준언어로서 돌출하게 됐다. 결국 Français 라고 불리우는, Francien의 이러한 우호적인 입장은 어떤 내적인 탁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모든 방언들은 잠재적으로 똑 같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들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선행자들을 벗어났던 권력을 자기 자신들의 손에 한번 더 집중시키고져 했던, Francien 방언으로 말하는 지역의 핵심인 Paris에 거주하는 보다 강한 군주들에 의한 13세기와 14세기 국가의 통제수단의 회복에 의해서 대부분 제공됐다. 마찬가지로 빠리는 그 왕국의 예술적이며 종교적이고 지성적인 중심지가 됐다(빠리 대학은 13세기 초에 설립됐다). 비록 프랑스를 굴복시킨 채 남겨두었기는 해도, 백년전쟁(1337-1453)의 재앙은 심지어 일상적인 사람들에서조차 국가적인 French 양심을 생산시켜 빠리의 말투에 따른 국가언어의 확립을 도왔던 그 왕관의 명성에 기여했다.

13세기부터 로만스 방언들은 점차적으로 문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비문학적인 문서들에서도 라틴어를 대체했다. 먼저 국가적인 관심의 공식적인 서류들에 있어서, 결국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도 Francien이 선호돼야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259년에 체결된 빠리 조약은 **Francien** 또는 **French**로 된 유형의 첫 번째 문서였다.

많은 문어적인 생산성 덕분에 마찬가지로 France의 언어는 해외 특히 이탈리아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광범위함을 획득했다. Dante의 선생 Brunetto Latini는

자신의 Trésor, 일종의 중세 백과사전을 French로 썼다(약 1260년). 그리고 Marco Polo는 자신의 회상록[동방 견문록]을 French(1298년)로 썼다. 다시 이것은 다른 유럽어들에 대한 French의 내적이 우월성에 기인한 것 보다는(비록 Brunetto Latini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French에 대한 편애를 그 탓으로 돌렸지만) 오히려 France는 표준적인, 초 지역적인, 국가적인 문어의 어떤 것을 발전시킴에 있어 다른 유럽나라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Middle French(15세기와 16세기)와 Modern French(17세기부터) 라는 용어는 발전하고 있는 Francien 방언을 관습적으로 지시한다. 한 때 영특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문학의 담당자였던 Provençal을 포함한, France의 다른 방언들은 그 이후로 계속된 퇴행이었다. Jean Froissart(1338-1410)는 Francien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 마지막 중요한 저자였다.

15세기와 16세기의 France의 문화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현상인 Renaissance는 언어학의 역사에 있어서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낱말들과 표현들의 채용과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신(neo, 新)-Latin의 문법적인 구조와 바람직하지 않게 들어 맞았던 다소 지루하며 엄숙한 수사학적인 라틴화 스타일의 훨씬 덜없는 세련됨을 채용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부터 빌려온 낱말들 중 많은 것은 비록 처음에는 교양있는 소수의 재산이었지만 수세기 거치는 동안 공동의 재산이 된다. 단지 언어학적인 분석만이 그것의 기원들을 폭로할 뿐이다.

이탈리아의 영향은 라틴어 재원에로의 귀환과 훨씬 관련있다. 1494년 Charles VIII는 이탈리아 정복을 착수했다. 그는 저서 돌아왔지만 이탈리아 무엇보다 프랑스에 이탈리아인의 르네상스를 소개했다. 1533년 왕자 Henry(후에 Henry II)는 14살의 나이에 이탈리아 문화보다 훨씬 이탈리아어적인 France Italians를 가져온 Catherine de Médicis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수입들은 응용되고 흡수됐으며 그리고 라틴어와 이탈리아어의 영향 (프랑스어 사전에는 이탈리아 기원의 낱말들이 약 1.000 여 개 있다)과 관련없이 프랑스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었다.

Francis I 치하에서의 Villers-Cotterêts(1539) 포고령은 궁전 재판소 안의 그것의 최후의 거점에서 라틴어를 몰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라틴어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1536)을 Calvin 스스로 프랑스어로 번역함(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41)은 프랑스어를 신학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성서의 대중화에 새롭게 반대했다 바로 이 때에 그것(성서의 대중화)

는 신교도들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격렬하고 피터지는 싸움을 가져왔다. Sorbonne는 교회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프랑스(France) 학교들은 역설적으로 French 반대 운동에 포함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French는 신교도 교회의 언어로 됐다.

비록 칼빈은, 자신의 독일인 맞수 Luter처럼, 국제적인 표준 언어의 확립 도구는 아니었지만, 그는 산문의 대가(master, 大家)였으며 따라서 문어적인 French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칼빈의 저서들과 그리고 그와는 닮지않은 동시대인 Rabelais(1495-1553)의 저서들은 후대 저자들에게 모델로서 봉사했다. Rabelais는 그의 어휘의 화사함 때문에 인상적이다. 그는 French언어에 자신이 만든 신조어를 끌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여태까지 세속어로서 꺼려져왔던 수많은 기교적인 용어들과 방언적인 표현들에 의해 다소 형식화되고 보수적인 표준 언어를 부유하게 했다. 만약 자신의 문맥에 적합하면, Rabelais가 사용하지 않거나 만들지 않은 낱말이 없을 정도였다.

시(poetry, 詩)의 영역에 있어서, Pléiade의 저자들은 만약 French가 다른 어느 언어처럼 이미 좋지 않다면, 그전 언어들로부터 빌려옴을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경작되며 부유해져 확실하게 좋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1549년 Joachim du Bellay에 의해 글로 쓰여진, La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라는 자신들의 선언(manifesto, 宣言)을 이슈화 했다. 그것의 현대적 “전와”(corruptions, 轉訛) 보다는 라틴어에 훨씬 더 일반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문법가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French에 자신들의 관심을 전환시켰다. French 언어는 그 자체 실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라틴어의 보호(tutelage, 保護)로부터 그 자체 벗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보다 더 차분한 그리고 덜 Rabelaisian적인 문화적 풍토 속에서 반동을 곧 요구하게 됐던 élan(비약)과 풍요로움 속에서 그렇게 했다.

르네상스 삶의 자유와 충분함과 파격 이후의, 그리고 종교적인 전쟁의 격변 이후, 17세기에 프랑스(France)는 질서와 규칙과 절제와 이성(raison)의 시대에, Louis XIII와 Louis XIV와 Richelieu와 Mazarin의 사람들에서 절정에 다다른 정치적인 중심화와 독재의 시대에 들어선다. 마찬가지로 언어에 있어서도 이 때는 축소와 가지치기의 시기였다. 르네상스 언어의 시끄러운 성장은 제거됐다. François de Malherbe는 자제력있는 규범과 그리고 상위계급에 의해 실천된 것으로서의 le bon usage를 격찬하며서, 무정부주의와 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와 신조어에 성공적으로 맞서 싸웠다. 산문에서의 Jean Louis Guez de Balzac은 비

스한 견해들을 진척시켰다. 그리고 Claude Favre, Seigneur de Vaugelas는 비록 궁정과 honnêtes gens의 용법(usage, 用法)이었기는 해도 말함과 글쓰기를 위해 적절하게 안내했던 동시대의 문법가였다. 1635년에 군주 독재의 열렬한 주창자였던 Richelieu는 Frech 언어를 감시하고 그것의 전화를 막는 임무를 지닌, French 언어학 독재의 심장(seat)인 Académie Française를 설립했다. 그 아카데미의 첫 판 사전은 1694년(1932-35년에는 제 8판)에 나타났으며, 그것의 의도는 기술적이라기 보다는 규범적이었다. 그러나 언어의 자연스런 발전을 막으며 단지 작은 소수에게만 알려진 호화스러운 장식(frills)들을 덧붙임은 미이라처럼 바싹 말려버릴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French는 이런 운명을 아마 어투(fashion)의 많음과 거기에 수반하는 얇은 층의 사회에로의 제한 때문에 모면했을 것이다. Molière(1622-73)은 그것을 (예를들어 Femmes savantes에서) 놀렸다. 그리고 그의 대화편은 교양있는 자든, 숙녀든, 젊은 멋쟁이든 늙은 어릿광대이든 그러한 규칙들에 거주하여 갇힌 자들은 누구이든 공통의 사람들에 거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었다. 더구나 이 때는 궁전과 독재와 상류사회가 자신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머지 사람들과의 접촉들로부터 벗어나 살았던, 그 혁명 동안에 특권계급이 지불했던 옹고집의 격리의 시대였다.

Descartes(1596-1650)에서 설명된 이성, La raison은 그 시대의 암호(watchword, 暗號)였으며 그리고 질서정연함과 이성과 불변성은 몇몇 사람들이 그 문어에 족쇄를 채우는 끈들이었다. 위대한 고전 권위자들은, 무엇보다 Corneille(1606-84)와 Racine(1639-99)는 자신들의 규칙적인 Alexandrine 운율과 그리고 자신들의 trois unités(이성적임과 그럴듯함의 이름으로 그 드라마로 하여금 어느 한 시대 이상의 시대를 또는 에워싸워진 그 무대에 주어짐 이상의 더 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시간과 공간과 행위의 세 날개들)과 그리고 그들의 고전적인 구성들과 그들의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언어적인 자유를 포기했다.

역설적으로, 이성의 실제적이고 사려깊은 등장은 그것의 이름에 무모하게 그리고 잘못 부여된 언어학적이고 문어적인 몇몇 규범(canons, 規範)들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왔다. Encyclopédie와 그것의 시조들과 저술가들에 의해, Diderot(1713~84)와 Voltaire(1694~1778)에 의해 본보기화된, 18세기의 일깨우는 과학적인 연구들은 앞선 세기에 글로쓰여진 언어에게 부여된 제한 하에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없었다. 새로운 사물들과 새로운 생각들에 관한 과학적인 대화는 새로운 기교

적인 용어들을 요구했으며, 농장과 작업장으로부터 온 향토주의와 대중적인 낱말들은 만약 그것들이 의도에 봉사한다면 고용됐다. 동시에 교회와 상류계층과 궁전은 Louis XIV의 체제의 외부적인 영화에도 불구하고 민중들 사이에서 신뢰와 명성을 잃었다. 따라서 le bon usage의 주요한 기둥들은 부서졌으며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Voltaire와 Rousseau(1712~78) 라는 산문의 대가이며 동시대 사회의 엄한 비판자인 이 양자는 비록 관념들과 방식들에 있어서는 함께 달랐지만 17세기에 애호됐던 언어학적인 용법(usage, 用法)에 관한 권위와 강제를 거부함에 있어서는 비슷했다.

국가주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전체 국가의 힘을 모으려 시도했던 (1789년에 시작한) 프랑스 혁명은 언어에서의 시골말투(patois)와 “외래주의”에 터놓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런 국면은 그것의 바로 이름들이 외래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라 실제적인 것에 향하는 적대감과 그리고 전통적인 것과 말라버린 것과 인위적인 것에 대한 증오를 암시하는, 19세기의 문학적인 운동 곧 낭만주의와 실제론과 자연주의 운동에 곧 직면한다.

이러한 변화들과 유행적인 흐름의 바뀜은 주로 어휘와 스타일에 관련했다. French 언어의 구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세(Middle, 中世) French 시기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French에 있어서의 현재 언어학적인 흐름들과 유행들은 다른 언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muatatis mutandis(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일하다. 문어적인 표준언어는 단지 지방적인 발음의 특수함을 남겨두는 대가로 지방적인 방언들을 희생시키면서 꾸준히 퍼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증가된 문명율과 그리고 최근까지 격리된 지역들까지 인쇄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고나통에 의해서 측정할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실 육아실로 역지로 밀어넣는 격인, 국제적인 과학과 기술적인 어휘들의 확산도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세기의 언어학적인 연구들의 충격 하에서, 언어를 국가적인 기념물보다는 사회적인 도구로 보다 더 간주하는 태도의 느린 획득이 있다.

### 3)음성학.

후기 말해진 라틴어의 강세받은 모음들은 질적으로 서로 구분됐으나, 낱말 안에서의 그것들의 질과 위치에 따라 Old French에서 발전된 질과 량(i e e a o o u: 점은 닫힌 발음을, 반원은 열린 발음을 가리킨다)에 의해서는, 고전라틴어에서처럼,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고전 라틴어 ē와 ī 양자를 이어가고 있는) e (고전라틴

어 *ō*와 *ū*를 이어가고 있는) *ę* *o*는 열린 위치에서 음절의 끝에 올 때 이중모음으로 됐으며, 닫힌 위치에서 음절의 내부에 있을 때 그것들은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무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위치는 모음들을 길게하고 그래서 이중모음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추측은 본질적이지 않다(*teġa* > *teile* [Mod. Fr. *toile*]; *peġdem* > *pie*; *flōrem* > *flour* [Mod. Fr. *Fleur*]; *coġrem* > *cu*er [Mod. Fr. *coeur*]; *vġrga* > *verge*; *ceġruum* > *cerf*; *rŭpta* > *rote* [Mod. Fr. *route*]; *poġtam* > *porte*). 일반적으로 *i*는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으며(라틴어 부정형(infinitives, 不定形) *-ire* > French *-ir*), *u*는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독일어에서의 움라우트(Umlaut)처럼 발음되며 *ü* 그리고 *u*로 스펠링화됐다(*luna* > *lune*). 자유로운 *a*는 *e*로 됐으며 닫힌 *a*는 그대로 남았다(*mare* > *mer*, *partem* > *part*).

*Old French*는 *a*, *e*, *o*, 또는 *u*의 일차적인 것 또는 이차적인 것과의 연결로부터 유래하는 이중모음들 *ai*, *ei*, *oi*, *ui*들을 지녔는데, 후자는 예를들어 구개자음 또는 구개음화된 자음으로부터(*factum* > *fait*; *tectum* > *teit* [Mod. Fr. *toit*]; *gaudium* > *joie*; *fructum* > *fruit*) 또는 때로 보다 이른 삼중모음화로부터(*noctem* > *nueit* > *nuit*; 그러나 *iei*는 단모음화된다: *lectum* > *lieit* > *lit*) 발전했다. 자음 앞에서 *l*의 유성음화로부터 기인하는 *u*와 묶어질 때, *a*, *ę* 그리고 *o*는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으로 나타났으며(*altum* > *aut* [Mod. Fr. *haut*]; *feltrum* > *feutre*; *multum* > *mout*), 그리고 *ę*는 삼중모음으로 나타났다(*bellus* > *bels* > *beaus* [Mod. Fr. *beau*]). 이것들의 발음은 *Old French*에서는 이중모음이었던 반면 *Modern French*는 그것들 대부분을 더 오래된 스펠링을 유지하는 동한 단모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발전은 어떤 음소적인 상황들에서는 중성화되거나 변경된다. 자음의 궁극적인 흡수와 더불어 **m**과 **n** 앞 모음들의 비음화는 주목되어야만 한다(*pontem* > *pont*; *manum* > *main*). 자음들의 경우 언급된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개괄된 규칙들과의 많은 불일치는 낱말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규칙적인 음소적 교체 규칙이 아니라 범형의 살아있는 영향에 일치하는 유비적인 개량에 기인하다(*finire*는 *fenir*로 됐다. 그러나 첫 *i*에 액센트가 주어지고 따라서 고정적인 형식과의 유비에서 *finir*로 발전됐으며, 강세받은 자유로운 *a*를 지니는 *amo*는 규칙적으로 *aime*를 제공하나, 동일한 *a*가 강세를 받지 않는 *amare*는 *amer*로 되지, 유비(analogy, 類比)에 기인하는 *aimer*로 되지 않는다).

강세받지 않은 모음들은 낱말 안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 발전했다. 그것들은 결코 이중모음화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부터 세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주어진 단어인)프로우페락시톤(*proparoxytone*)의 완전히 강세받지않는 역양이후의

(posttonic)모음은 French에서는 변함없이 탈락된다(populum > peuple). 마찬가지로 강제받지않는 모든 마지막 모음들은 소위 침묵 e를 포함하는 a를 제외하면, 탈락된다(quando > quant [Mod. Fr. quand]). 그것은 항상 침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학적으로 ə로 필사되는 Schwa 소리로 발음될 수 있으리라(luna > lune). 마찬가지로 다른 마지막 모음들은 만약 그것들이 하나의 French 낱말로 끝낼 수 없는 선행하는 자음 군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면 유지되는데(populum > peuple; ferbrem > fièvre), Morden French에서의 그런 단어는 때로 화자가 그 마지막 ə를 발음하지 않을 때 때로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자음의 소리를 잃는다(peup'; fièv'). 양음엑센트 이전 (pretonic) 음절의 모음은 마치 마지막 것의 그것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그것은 때로 counterfinal 이라고 불리운다(ornamentum > ornement; liberare > livrer). 첫 머리 음절의 모음은 일반적으로 강제받지 않을 때 약해지며(실천적으로 a > ə), 두 번째 강세를 지닐 때 그것은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된다.

자음들의 발전은 그것들의 위치(첫 머리, 모음 사이, 마지막 또는 어떤 군(cluster, 群)의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들의 질 보다는 그것들의 음성학적 환경들에 의해서 보다 더 규정된다. 가장 널리 퍼진 현상들은 그것에 의해 소리들 k, g, yod("yes"에서의 첫 소리)와 d 더하기 yod가 만약 e, i, 또는 yod가 잇따른다면, s, ts, sh, dz와 zh로 되는 자음들의 구개음화였다(çeruum > cerf; civitatem > citet [Mod. Fr. cité]; gentem > gent; iungere > joindre; diurnum > jorn [Mod. Fr. jour]). 모든 로만스 언어들 중에서 단지 French 에서만의 k와 g는 만약 강세를 받을 경우 ie로 됐던 a 앞에서 마찬가지로 sh와 zh로 됐다(caballum > cheval; caput > chief [Mod. Fr. chef, 영어로부터 빌려오는 동안 그것의 O.F. 형식에서]. 비록 스펠리에서는 변하지 않았지만, 첫 머리의 qu는 k 소리로 되면서 u 요소를 잃었다(quando > quand). 다음 자음들이 잇따르는 첫 머리 s는 그 s가 탈락하는 동안 남아있는 prothetic e를 얻는다(stella > esteile > étoile).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성대의 떨림을 수반하지 않고 생산되는) 무성 자음들은 후기 말해진 라틴어에서처럼 (성대들의 떨림을 수반하면서 생산되는) 유성음화 됐다. 고대 French에서의 그것들은, 본디 유성 자음들처럼, 마찰음화되거나 또는 탈락되는 경향이 있었다(videre > veir [Mod. Fr. voir]; vita > vie; faba > fève; ripa > rive; plaga > plaie; securum > seür [Mod. Fr. sûr]; placere > plaisir). ss와 rr를 제외하면 겹쳐진 중간 자음들은, 비록 Morden French에서의 어원론적인 스펠링이 발음에 어떤 영향도 미침이 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하더라도, 단순화된다(cappa > chape; gurra > gote [Mod. Fr. goutte]; belle > bele [Mod. Fr. belle]; flamma > flame [Mod. Fr. flemme]; terra >

terre; missa > messe). mn 군은 m으로 됐다(dom(i)na > dame).

마지막 자음들은 대부분 Old French에서는 유지됐지만, 비록 스펠링에 있어서는 꼭 탈락하지는 않았어도 후에 발음에서는 탈락됐다. 마지막 m은 French에서의 그것은 n으로 나타나는(rem > rien) 단음절어를 제외하면 초기 라틴말에서는 탈락됐다. 마지막 s는 고대 프렌치(프랑스)어 기간 내 내 유지됐다. 끝 유성음들은 무성음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결국 본디 것들과 함께 상실됐으며(quand(o) > quant), 그런다음 그 t가 탈락됐다. 현대 프렌치(프랑스)어 quand는 스펠링에 있어 어원론적인 d의 회복을 보여주나, 발음에서는 아니다.

//(Tranel 1981, Walter 1982를 보라). 프렌치(French, 프랑스)어 음소들의 목록은 라틴어의 그것과 그리고 다른 로만스어들의 그것과 의의있게 다르다—즉, 그러나 배타적으로는 아니지만, Gallo-Romance 기간 동안의 과격하 변화 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옆 표에서 보여주는 모음 체계에서 특히 분명해진다. 전설원순모음들이 다른 로만스 표준어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그리고 비음화된 모음소들은 단지 Portuguese에서만 발생한다.

괄호쳐진 항목들은 주변적(marginal)인 것이 됐다.

		전설		후설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높음		i	y		u
단힌중간		e	ø		o
열린중간	Oral	ɛ	(œ)	(ə)	ɔ
	Nasal	ẽ	(œ̃)		õ
낮음	Oral 구모음	a		(ɑ)	
	Nasal 비음			ã	
<b>French 모음소들</b>					

다: /a/ (pâte ‘pastry’)와 /a/ (patte ‘paw’)사이의 구분은 더 이상 대부분의 화자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ø/와 /œ/의 현재의 분포는 부분적으로 위치의 결과이며(/ø/는 열린 마지막 위치에서 일반화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유비적인 다양한 변화의 결과이다. 네 개의 단모음 비음들 중에서 /œ̃/는 입술이 동그레지지 않으며 그리고 /ẽ/와 합쳐지는 경향을 지닌다(Fouché 1956). 마지막으로 (lisez-le ‘read it!’에서처럼) 강세 받을 때의 [ə]는 그것의 Shwa가 결과적으로 강세받지않는 이형(allophone, 異形)으로 간주될 수 있을 [ø]로 일반적으로 구현된다. 17세기 동안에 강세받지않는 [ə]는 Parisian 말에서 점차적으로 말소됐다. 그래서 lire ‘to read’는 /liʁə/ 보다는 /liʁ/로 발음되게 됐다—대부분의 남부 다양함들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변화. 다른 위치에서의 /ə/의 운명은 아래 [15쪽에서] 논의된다. 마찬가지로



French는 세 개의 반(半) 모음소 /j w ʉ/를 지닌다. 하나 또는 심지어 둘, 그러한 반 모음들은 복잡한 모음 음절(vocalic nucleus)을 형성하기 위해 모음과 결합할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poids/pwa/ ‘weight’, vieille /vjej/ ‘old’ (fem.).

동시대 French의 자음 목록은 오른쪽 표에서 보여진다.

수세기에 걸친 주요한 변화는,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처럼 여기로만스어에서도,

French 자음소들						
		순음	첨설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무과열	무성음	p	t		k	
폐쇄음	유성음	b	d		g	
마찰음	무성음	f	s	ʃ		
	유성음	v	z	ʒ		ʁ
비음		m	n	ɲ		
측음			l			

경구개음의 분절 점의 돌출이었다. 이것은 현행 세 개의 구현형을 지닌다. 그러나 최근까지 그것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에 네 개—/j/로 되어가는 구개 측음/ʁ/를 지녔다. 마찬가지로 프렌치(프랑스어)는 분절 [발음]의 과열마찰음적 양상의 창조와 연이은 제거를 보여주었다: 고대 프렌치(프랑스어) /ts dz/는 각각 /s z/와 합쳐짐 그리고 /tʃ dʒ/는 마찰음 /ʃ ʒ/로 살아 남았다. 현대 프렌치(프랑스어)는 /h/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초기의 /h/의 잔존의 영향은 탈락(elision)의 방해이다(h aspiré): la hache는 \*l’hache \*/laʃ/ 보다는 오히려 /la aʃ/이다. 마지막으로 /ʁ/는 구개수 마찰음, 북 프랑스(France)에서의 r-음소의 정상적인 발음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구개수 진동음(trill)이 마찬가지로, (특히 그 나라의 남부에서) 혀끝소리 진동음이 발생하듯이, 발생한다.

분명히 프렌치 정서법의 고정이후에 발생했던 상대적으로 최근인 하나의 발전은 말 할 때의 낱말-마지막의 많은 자음들 상실이다. 예를들어 pied /pje/ ‘foot’, port/pɔʁ/ ‘harbor’, banc(s) /bɑ̃/ ‘bensh(es)’. 이런 과정은 보다 앞에서 언급됐던 마지막 /ə/의 말소 이전에 생겨났다. 따라서 tiède /tjɛd/ ‘warm’, porte/pɔʁt/ ‘door’, 또는 banque /bɑ̃/ ‘bank’와 같은 낱말들 안에서의 본디 마지막-이전 자음들은 유지되어 낱말-마지막이 됐다.

본디 마지막 자음들의 이런 점진적인 말소는 연성(liaison, 連聲, 연음連音)의 현대 현상들의 근거에 놓이면서 의미 그룹들 내에서의 모음-이전의 위치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침식이 저항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il est /ilɛ/ ‘he is’를 est-il? /ɛti(l)/ ‘is

he?’와 비교하라. 보통 상실된, est의 /t/는 두 번째의 보기에서는 충분히 유지된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l/은 자주 일상적인(casual) 말에서 상실된다. 본디 유성 마찰음들은 이런 환경들에서는 유성음화된다. 예를들어 les enfants /lezãfã/ ‘the children’에서의 /z/처럼 말이다.

‘의미 그룹’(sense group) 즉 의미있는 구들(meaningful phrase)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강세 위치를 위한 관련 단위이기 때문에 프렌치어에서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강세는 ([ə]를 제외하면) 그 구의 마지막 음절에 떨어진다. 명사적인 그룹과 동사적인 그룹 양자는 실제적으로 그 언어역사의 보다 이른 시기들에서 보다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les grands animaux /legʁɑzaimó/ ‘the big animals’(연음되는 /z/에 주목하라), 또는 on(n’) y va pas /õnivapã/ ‘we’re not going there’는 구-마지막 강세를 위한 프렌치어의 성향을 예시한다.

비슷하게, **낱말-마지막 위치의 [ə]의 손실**은 이것이 인정될수없는 자음 군들에로 이끌지 않을 때마다 그 의미그룹 이내에서 말소되는 (항상 강세받지 않는) shwa에 해당되는 보다 더 일반적인 경향의 부분이다. 인정가능성은 스타일적인 사용역과 말의 빠르기 양자에 따라 다양해진다. 그래서 une petite feuille /yn(ə)p(ə)tít(ə)fœj(ə)/ ‘a small leaf’에서의 [ə]의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보기들은 자연스럽게 표준 프렌치어에서는 상실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것은 자주 상실될 것이다 (/ynpítifœj/). 그러나 une petite revue ‘a small review’에서의, revue의 첫 번째 /ə/는 \*/ynpítitʁvy/에서의 인정될수없는 음절-첫머리 /rv/를 회피하기 위해 보통 유지될 것이다. 거꾸로 [ə]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 할 어떤 자음 군들을 깨트리기 위해 말해진 언어에서 현실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예를들어 un ours blanc /œnurs(ə)blã/ ‘a white bear’//

### 3-1)알파벳

/프랑스 어의 알파벳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26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다. 이것들 중 k와 w는 외래어에서만 쓰일 뿐이며, 본래의 프랑스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kilo 킬로그램; le wagon 객차. 그리고 26 개의 자모 중 모음자(letters-voyelles)는 A. E. I. O. U. Y의 여섯 자이고, 그 나머지 20 자는 자음자(letters-consonnes)이다.

음은 크게 나누어 모음(voyelles)과 자음(consonnes)으로 구별하는데, 이들의 중간 성질을 지닌 반자음(semi-consonnes, 半字音) 또는 반모음(semi-voyelle: [j], [u], [w])을 따로 나눌 때도 있다.

Alphabet français 프랑스어의 자모					
A	[a]	아	N	[ɛn]	엔
B	[be]	베	O	[o]	오
C	[se]	세	P	[pe]	페
D	[de]	데	Q	[ky]	퀴
E	[ə] [e]	으, 에	R	[ɛ:r]	에르
F	[ɛf]	에프	S	[ɛs]	에쓰
G	[ʒe]	제	T	[te]	테
H	[s]	아쉬	U	[y]	위
I	[i]	이	V	[ve]	베
J	[ʒi]	지	W	[dubløve]	두블르베
K	[ka]	까	X	[iks]	익쓰
L	[ɛl]	엘	Y	[igrek]	이그렉
M	[ɛm]	엠	Z	[zed]	제드

#### 4) 정서법

첫 토속어 텍스트들이 쓰여졌을 때, 필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라틴 아파벳을 사용했다. 비록 심지어 다양한 소리 변화들이 이것을 덜 이상적인 것으로 만들 대 조차도 말이다. 스펠링이 상대적으로 음소적이었던 11세기~13세기 경의 시기 후, 다음 두 세기 동안은 상황이 두드러지게 악화됐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스펠링 수정과 조화되지 않았던 공정하게 급격한 음성학적인 변화들의 더 나아간 범위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유사-어원론적인 스펠링들의 날카로운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이러한 어원론적인 유사 스펠링에서의 하나 또는 더 많은 문자 들은 그렇게 나타내진 소리가 심지어 그 소리가 프렌치어에서 수정되거나 말소됐 을 때 조차도, 실제적인 또는 상상된 라틴 어근(etymon, 語根)에서 주어졌기 때문 에 프렌치 스펠링에 더해졌다. 하나의 단순한 보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시한 다. 고대 프렌치어에서의 ‘weight’는 pois로 스펠링화됐고 /pois/로 발음됐다. pois와 라틴어 pondus와의 잘못된 연합은 결코 발음될 수 없었던 d의 삼입으로 이끌었 다.—그래서 현대 스펠링 poids. /oi/에서 /wa/로의 연이어진 이중모음화 과정도, 마 지막 /s/의 말소도 poids가 이제 /pwa/ 발음을 ‘나타낸’ 결과, 정서법에서는 인식되 지 않았다. 18세기에 쓰여진 글로 쓰여진 액센트들의 다소 체계적인 도입을 예외

로 한, 다양한 모든 스펠링 개혁의 시도—많은 것들이 있었다—들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다. 그래서 프렌치어는 영어와 더불어 두드러지게 음성학적이지만 정서법의 체계의 애매한 특징을 공유한다.

### 5) 형태론

라틴어 명사변화 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음 음소적 신호(signals, 信號)들은, 즉 소위 격 어미들은, m과 s 였다. 초기에 마지막 -m은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강세받지 않은 모음들에서의 오랜 양적이고 질적인 구분드의 상실 또는 흐려짐 때문에 명사 변화의 모음적인 신호들도 자신들의 의의를 잃었다. 그래서 의의있는 표시자들을 빼앗긴 많은 격들과 더불어 그 전체 범형적인 체계는 운명지워졌다. 그러나 고대 프렌치어가 마지막 s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 s로 끝나는 격 어미들(대부분 주격 단수와 목적격 복수)은 s 없이 서로로부터 구분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범형에 따라 s는 자주 심지어 라틴어에는 없었던 형들에게조차 유비적으로 더해졌으며 그리고 그것이 방해받는 곳에서는 형식들로부터 탈락됐다. 그러나 그 새로운 장치는 라틴어에서처럼 6 가지 격이 아니라 단지 두 가지-명사 변화—하나는 주격과 다른 하나는 주격이 아닌 것으로만 이어질 수 있었다. 후자가 직접 목적어(목적격) 이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치사에 선행했다. 한 번 마지막 s가 마찬가지로 침묵하게 돼자 주어와 비주어 구분들의 중요함은 더 이상 형식적으로 신호화 될 수 없었다. 전치사이전의 구들이 필수불가결하게 돼 버렸다. 그 안에서 굳어진 어순(주어—동사—직접목적어)가 규칙이 되어 버렸던 주어-직접목적어 관계를 제외하고서 말이다.

그러나 첫번째로 왔던 것, 격 어미들의 음성학적인 붕괴 또는 다른 그런 장치들에 의한 격 어미들의 기능적인 교체를 정확하게 확실히는 것은 어렵다. 그 두 개의 경향들은 아마 함께 발생해서 서로를 강화시켰을 것이다. 일반적으로(그러나 예외는 있다) 현대 프렌치어는 주어가 아닌 격을 단수와 복수 양자적으로 계속 이어나간다. 음향학적으로 단수와 복수의 차이는 비록 스펠링에서는 보여질지라도 대부분의 격들에서는 수반하는 관사에 거주했다(la table-les tables; une table-des tables). 단지 대명사들만이 격 구분들의 들을 수 있는 흔적들을 보유한다(le, lue, les, leur, ue, me, tu, te, 등). 라틴어의 세 가지 성들은 두 가지로 감소되면서 중성들은 다른 성들의 어느 하나로 전이되 버린다(-a로 끝나는 복수는 자주 불어 여성 단수로 된다). 모든 명사들이 자신들의 라틴어 성을 유지한 것은 아니다.

격들과 성들에 관련되는 한, 형용사들은 명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형용사들의 비교와 부사들의 형성은 굴절(inflection, 屈折) 보다는 오히려 복합을 통해서 완수됐다: calidum, calidius, calidissimum, calide는 chaud, plus chaud, le plus chaud, chaudement < calida mente (문자적으로 “With a warm mind”). 현대 프렌치어에는 오래된 길들의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고대 프렌치어에는 더 많이 남아있다(meliorem > meilleur; peius > pis; maiorem > majeur; fortirem > O.F. forzor; pessimum > O.F. pesme).

동사의 형태론은 말해진 후기 라틴어에서 겪어진 동사변화체계의 모든 변화들에 참여한다. 그것들 중 가장 놀라운 것은 그리고 프렌치어 그 자체 안의 것은 ㄱ) 여러 단순 시제 형식들을 복합적인 것들로의 교체(어떤 형식들은 여전히 복합어로 느껴졌다: il a donné; 다시 단순한 형식들로서의 다른 것들: donare habeo > donare aio > je donnerai; 새로운 복합[시제]로 자주 일상적으로 교체된다: je vais donner); ㄴ) 모든 단순 수동 형식들의 상실(amatur > il est aimé); ㄷ) 쓰임새의 수나 빈도에 있어서의 접속법 형식들의 감소; ㄹ) 조건법의 형성(donare habebat > il donnerait).

네 개의 라틴 동사변화 유형(-are, -ere, -ĕre, -ire로 끝나는 부정형(infinitives, 不定形))들 중에서 단지 세 가지만이 남는다(그러나 네 가지의 부정형 -er, -oir, -re, -ir). 그러나 모든 동사들이 자신들의 본디 부류들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rire < ridĕre 그러나 ridĕre가 아니다; choir < cadĕre 그러나 cadĕre가 아니다). 어떤 불규칙 라틴어 부정형들은 주요한 유형들과의 유비에서 규칙적으로 됐다(pouvoir < posse 대신 potere, vouloir < velle 대신 volĕre, être < esse 대신 essere). 그러나 전체 동사체계에 퍼진 그러한 유비적인 균등화는 변덕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기술되어지고 분류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측될 수는 없다.

//프렌치어는 라틴어로부터 접미적인 명사 형태론의 복잡한 체계를 물려 받았다. 그러나 Gallo-Romance 시기 동안에 이것은 **단수 대(vs. 對) 복수의 대립** 그리고 주역 대 사격(oblique, 斜格)의 대립으로 감소됐다(Brunot & Bruneau 1969). 전자의 구분은 예를들어 port(s) ‘harbor(s)에서처럼, 접미어 **-s**로서 정서법에 생존하긴 하나, **그 마지막 -s는 발음되지 않는다**. 후자의 구분은 어떤 대명사들의 경우를 제외하면(아래를 보라), 어느 곳에서든 상실된다 거의 항상 사격 형을 애호하면서 말이다. 형용사의 형태론은 남성/여성 성 대립이 관철된다는 부가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동일한 길에서 발전되는 데, 그것은 마지막 -e에 의해 정서법 상 표시되며 그

리고 말에서는 그 ‘마지막’ 자음의 발음에 의해서 표시된다. 이 마지막 자음은 보다 초기에 소멸되지 않았다. 그 단계에서의 그것은 마지막 [ə]에 의해 지탱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grand 대 grande ‘big’ (남성/여성)은 정서법적으로 양자 대조되며, 그리고 음성학적으로는 /gʁɑ̃/ 대 /gʁɑde/로 대조된다. 넓게 말하자면, 명사의 성을 그것의 음소적인 모습으로부터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수반하는 형용사—또는 심지어 보다 많은 한정자—이 일반적으로 이 명사의 성을 폭로한다. 그래서 /fe/ fait ‘fact’는 남성인 반면 /pe/ paix ‘peace’는 여성이다. 이것은 le (grand) fait ‘the (great) fact’과 la (grande) paix ‘the (great) peace’속에서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한정자들은 전형적으로 세 가지 세트로 발견된다. 성을 구분하거나(le/la ‘the’, 남성/여성) 또는 수를 구분(les ‘the’ 남성/여성 복수)하지만, 이 양자를 [한꺼번에]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 구분은 마찬가지로 /lə la le/로서 말로(orally)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mon frère ‘my brother’를 ma sœurs ‘my sisters’와 비교하고 그리고 mes frères, mes sœurs ‘my brothers, my sisters’와 비교하라. 프렌치어에서의 명사는 거의 항상 의미 그룹과의 밀접한 연결 안에서 한정자를 수반한다. (라틴어에서는 접미사적으로 표시되던)명사 구들 안에서의 수와 성은 이제 앞에 놓여진(prepose) 한정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문장 안에서의 명사의 구문론적인 역할은 만약 그것이 주어 또는 직접 목적어라면, 이제 어순에 의해 표시되며(아래를 보라), 다른 방식이라면 전치사에 의해 표시된다..

대명사들은 전형적으로 보다 더 다양한 길들에서 전개됐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세트의 암시를 해야한다. 첫째 지시 대명사들은 수와 성의 두 겹의 구분을 접미사적인 근접 표시자들과 연결한다. ‘이것’과 ‘저것’, 문자적으로는 ‘the one here’와 ‘the one ther’를 의미하는 남성단수 celui-sil-là에서처럼 말이다. 둘째, 인칭대명사 체계는 한정동사의 직접적인 의존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선언 형식 대 (vs. 對) 둘 또는 셋의 접속사

적인(접사적인) 형식들의 1인칭과 2인칭 복수에서 중성화되는 주요한 대립을 보여주는 데, 후자는 일반적으로 그 이외의 어느 곳에서는 상실되버린 어떤 격 구분들을 유지한다. 그러한 대조들이 우측 표에서 보여진다. Moi, je me lève ‘Me, I’m

프렌치어 인칭대명사들			
1인칭단수	mor	주격	je
		사격	me
2인칭 복수	vous		vous
3인칭 남성 복수	eux	주격	ils
		목적격	les
		여격	leur
	선언적인	접속사(접사, clitic)적인	

getting (myself) up'과 같은 문장은 이 모든 기능들을 예시한다

동사의 형태론은 비슷하게 많이 마멸됐다. 인칭/수와 시제와 법과 그리고 때때로 태들은 교착적인 형태론에 의해서 그 안에서 표시되는 출발점부터, 후기 라틴어와 Gallo-Romance와 프렌치어는 점진적으로 그러한 정보의 (비록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앞에 놓인 대명사들과 그리고 조동사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상황을 향하여 움직여간다(라틴어 *fēceram* 'I had done'을 그에 상응하는 불어 *j'avais fait*와 비교 해 보라). 특히, 대부분의 동사적 범형들에서의 여섯 인칭들 중 넷은 이제 정서법적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소리들이다. 그래서 규칙 동사의 현재 직설에서 우리들은 1인칭단수 *ferme* /fɛʁm/ '(I) close', 2인칭 단수 *fermes* /fɛʁm/, 3인칭 단수 *ferme* /fɛʁm/, 1인칭 복수 *fermons* /fɛʁmɔ̃/, 2인칭 복수 *fermez* /fɛʁme/, 3인칭 복수 *ferment* /fɛʁm/을 발견한다. 그러나 대명사 주어들의 쓰임새는 동시대 프렌치어에서는(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와 비교해볼때) 강제적이므로, 어떤 애매함도 발생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말해진 프렌치어의 대부분의 형식들에서의 1인칭 복수 *nous fermons* 'we close'는 결국 남아있는 두 개의 구분되는 접미사들 중의 하나를 제거하는 *on ferme* /fɛʁm/ 문자적으로 'one closes'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교체된다.

시제의 어떤 구분들은 여전히 형태론적인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재 직설 *ferme*는 미완료 *fermait* /fɛʁme/와 그리고 과거(*preterit*) *ferma* /fɛʁma/와 대조된다—마지막 것은 말해진 언어에서는 완료로 교체된다. 마찬가지로 이 셋 모두는 미래 *fermera* /fɛʁm(ə)ʁa/ 그리고 '과거 안의 미래'(조건)*fermerait* /fɛʁm(ə)ʁe/와 대립된다. 이것들 양자는 조동사 *avoir* 'have'의 뒤에 놓인 형식들이 점차적으로 그것과 합쳐지는 부정형(*infinitive*, 不定形)으로부터 본디 파생된 '마지막 시간' 형태소 -r-를 포함한다: *fermera* < *fermer* + a, 문자적으로 'to- close (he-) has', 즉 '(he) will close'. 보다 이른 시간을 가리키는 모든 동사적 범형들은 이제 앞에 놓이는 조동사들, 일반적으로 *avoir* 'have'를 사용한다—그러나 *être* 'be'가 (일반적으로) 자동사 또는 채귀 동사들의 한정된 수에서 사용된다: *il a germé* 'he has closed', 그러나 *il est parti*, 문자적으로 'he is departed'. (\**av-r-a*—보다 후 시대의 형태소—로부터의) *aura* '(he) will have'와 같은 그런 조동사의 미래 형식을 사용함에 의해서, 보다 더 복잡한 시간들이 표시될 수 있다. 예를들어 *il aura fermé* 'he will have closed'. 유일하게 형태소적으로 구분되는 법은 **접속법**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조차 조동사들 *avoir*오 *être*를 포함하여, 아주 공통인 많은 불규칙 동사들을 제외한 단지 여

분의 것들에만 표시된다. 이런 마지막 사실은 동시대 말해진 프렌치어에서 사용된 두 개의 접속법적인 범형들 중의 하나인 완료 접속법에 있어서의 구분을 유지하는 데 봉사한다. 마지막으로 수동태는 *il a été fermé* ‘it has been closed’에서처럼 앞에 놓여지는 조동사 *être*에 의해서, 영어에서처럼, 지금은 표현된다. 그러나 대안적인 전략, 특히 비인칭 *on*이 수동태를 회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on l’a fermé*, 문자적으로 ‘(some) one has closed it’, 즉 ‘it has been closed’ //

## 6) 구문론.

라틴어 구문론에서 프렌치어 구문론로의 변화들 중 많은 것은 음성학적이고 형태론적인 역사를 통해서 설명된다. 프렌치어는 라틴어처럼 고도로 변화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라틴어 변화(inflected, 變化)의 어떤 기능들이 프렌치어에서는 다른 수단들에 의해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한다**: 전치사 구들, 어순, 주어 대명사(대명사 없는 유사한 소리들 *chante, chantes, chante, chantent*). 라틴어 변화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고대 프렌치어에서의 어순은 보다 자유롭다 그리고 그 주어 대명사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마찬가지로 라틴어의 문법적인 규칙들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동안 그 새로운 언어는 아직 견고하게 성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불규칙함과 비법칙적인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실로 정당한 다른 규칙들이 있다. 라틴어에서의 프렌치어로의 구문론적인 발전이 증진이라거나(위대한 논리 또는 경제성 또는 질서) 또는 퇴보(어순의 딱딱함 또는 구분들의 감소 또는 변화의 풍부함 상실)이라고 주장되서는 안된다.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언어의 각 단계, 단지 변화가 있을 뿐이다.

중세와 현대 프렌치어 시기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앞선 부분에서 가리켜졌다: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두가지-격 체계의 끝**; **어순의 규정**; (각기 라틴어 지시 대명사와 숫자 **one(하나)**와 그리고 전치사 **de** 더하기 지시 대명사로부터 파생된) **정관사와 부정관사와 부분관사(partitive articels)**; **주어 대명사(subject pronoun)의 강제적인 사용**; 문법의 성문화와 고정화. *17세기 시작까지 그 언어는 구조에 있어 본질적으로 자신의 현대 무대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시기의 문법은 현대 프렌치어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쉽게 읽혀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른 언어들에 대한 프렌치어의 자주 뽑내는 논리와 선명함과 일반적인 우월성에 관해 말해질 수 있으리라. 이런 관념은 13세기 초엽에 Brunetto Latini에 의해서 표현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Riva의 *Discours sur l’universalité de la langue française* (1784)에서 그에 의해 도그마화됐으며 정식으로 기술됐고,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심지어 아래 참고문헌에서 인용된 어떤 책들에서조차) 반복된다. “선명하지 않은 것은 프렌치어가 아니다, 선명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영어이거나 이탈리아어거나 그리스어거나 라틴어이다” 라고 Rivarol은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 것은 좋은 영어가 아니다. 실로 그것은 그 이외의 어느 좋은 언어도 아니다. 선명성과 논리와 기교(skill, 技巧)와 다른 언어적인 탁월함은 언어가 아니라 사용자 안에 거주한다. 언어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어느 언어학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언어 사용자는 그 언어를 좋게 또는 나쁘게 사용할 수 있다. 언어학적인 질에 관한 진술들은 언어 구조가 아니라 스타일(style)을 거의 예외없이(invariably) 지시한다. 스타일은 언어의 체계적인 패턴 위에 놓여진 사용자의 언어학적인 개별 행위이다. 수세기 동안 위대한 문학을 생산했던 프렌치어의 많은 탁월한 실천가들의 실행을 보면, 언어학적으로 건문이 좁은 사람들은 이런 탁월함 몇몇을 언어 자체 탓으로 돌린다 (그러하므로써 그 저자 자신의 장점을 무의식적으로 줄인다). 만약 프렌치어가 오랫동안 국제 외교의 그리고 국제 사회의 품격높은(elegant) 대화의 탈것이었다면, 이것은 그 언어의 탁월함이 아니라 프렌치사람(Frenchmen)들이 이들 영역에서 행사했던 지성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에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고용했던 (학교에서 익힌) 기교(skill, 技巧)에 기인했다. 프렌치어가 영어와 러시아어에게 자신의 국제적인 어떠한 통용(currency, 通用)을 상실했다는 것은 그 언어의 우월함이 내적인 우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언어의 질적인 저하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서열(alignment, 序列)의 결과이다(E. PM.).

//(Ruwet 1972와 비교하라). 동시대 프렌치어에서의 주장 문장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정상적인 순서는 일반적으로 주어+동사+목적어 또는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SVO) 또는 주어 동사 보어(SVX) 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진다: Jean aime Marie ‘John loves Mary’, Nous allons à Paris ‘We are going to Paris’. 보어들이 접속사적인(conjunctive) 대명사들(20쪽 표 참조)들로 나타날 때, 이것들은 긍정 명령을 제외한 모든 것에 선행한다. 주어 보어 동사 순서를 생산하면서 말이다: Jean l’aime ‘John loves her’, Nous y allons ‘We’re going there.’ 그러나 말해진 언어에서 어순이 구문론적인 기준보다는 화용론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다 더 규정된다. 특별한 명사적인 것들의 엄밀한 문법적인 기능은 공지시(coreferential, 共指示)적인 접사적 대명사들에 의해서 선명하게 된다. 그래서 Marie je l’aime(문자적으로 ‘Mary I her love’)는

Marie elle m'aime (문자적으로 'Mary she me loves')로부터 각 예에서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을 Marie의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수반하는 대명사의 상대적 배치(configuration)에 의해서 구분된다(Harris 1978). 고전적인 SVO 문장들은 사실 말(speech)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흔하다. 'John loves Mary'는 다양한 길로 표현된다. 예를들어 C'est Marie que Jean aime, 문자적으로 'it's Mary that John loves'와 같은 그런 갈라진(cleft) 구조들에 의해서처럼 말이다.

**의문문**들은 올라오는 역양 패턴의 사용에 의해서 또는 지금은 불변 의문사(interrogative particle)로 돼 버린 Est-ce que .....? 어원론적으로 'Is it that?'에 의해서 단순하게 표시된다. 도치법(inversion, 倒置法)을 포함하는 보다 이른 구조들은 이제 비록 그것들이 여전히 글쓰기에서 특히 주어가 접속사적인 대명사인 곳에서 자주 발견되기는 해도(Vient-il?, 문자적으로 'Comes he?' 즉 'Is he coming?', 말에서는 덜 사용된다. **부정**(Negation, 否定)은 공식적인 사용역(registers, 使用域)들에서의 불연속적인 구조, ne ..... pas에 의해 표시된다. 예를들어 Il ne vient pas 'He isn't coming'. 이것은 비공식적인 사용역들에서 par로 단순화된다(Il vient pas). 표준 사용역들에서의 이 pas는 ne 대신의 다른 부정(negative, 否定)적인 요소들과 함께 사용된다. 그래서 공식적인 Il ne veut rien, 대중적인 Il veut rien, 그러나 표준적인 Il veut pas rien 'He doesn't want anything.'

명사구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전형적으로 성 또는 수는 단지 한정자들에 의해서만 말에 있어 전달된다는 것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한정자들이 부재할 때의 또는 그것들 자체가 차별지위지지 아니할 때의 문법적인 명백한 표시는 부재한다. 그래서 beaucoup de fromage(s) 'much/many cheese(s)'에는 fromage의 성을 말할 길이 없으며 그것의 성에 관해 말할 길이 없다.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온다. 비록 작은 수의 형용사들이 명사에 선행하기는 해도 말이다. 더구나 더 작은 수의 형용사들은 위치에 따른 두 개의 값을 지닌다. 예를들어 un brave homme 'a kindly man' 대(vs. 對) un homme brave 'a brave man'. 많은 경우에 스타일적인 근거들에서 순서의 다양함이 가능하다.

동사 구들에 관하여 우리는 모든 접속사적인 대명사들은 전형적으로 동사에 선행한다는 것을 봤다. 이런 **접사**(clitics, 接辭)들은 선언적인 대명사들이 마찬가지로 현재할 때 조차 발견된다. Moi, je l'aime, 문자적으로 'Me I love her', [그러나] \*Moi l'aime 'I love her'는 아니다. 대중적인 말에서는 주어 접사들이 자주 심지어 명사적인 주어들과 함께 발생한다 예를들어 Mon père il dit ....., 문자적으로 'My father he says ...'. **복합시제**들에서의 주요한 일치는, 형용사들과의 유비가 선명한 곳에서,

자신의 조동사가 être인 동사들과 함께 발견된다. 그래서 Elle est partie ‘She has gone’(Il est parti ‘He has gone’과 대조하라). 보다 더 복잡한 다른 규칙들은 최소한도 비공식적인 사용역에서 이미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들 사이의 의미있는 선택의 아주 드문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완료 **접속법** 범형들은 생생하며, 그리고 자주 한정된 수의 구조들에서 사용된다—예를들어 직설법 viens가 불가능한 곳인 Il faut que tu viennes (접속법) ‘It is necessary that you (should) come’. 달리말해서 접속법의 쓰임새는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구문론적으로 지배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양상적인 뉘앙스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때, 대부분 자주 조건[문의 형식을 띠는], 대안적인 형식들이 대신에 사용된다. 그래서 quoique cela soit (접속법) vrai ‘although that is true’, 그러나 quoique cela serait(조건)vrai ‘although that may (아마도)be true’(규범적인 규칙들은 quoique를 지닌 접속법을 요구한다, Grevisse 1980).//

#### // 7)어휘.

프렌치어의 핵심어휘들은 아주 많이 Gaul에서 말해진 라틴어로부터 파생된다. 그러면서 Gallo-Romance 시기와 그 이후에 음성학적으로 변형된다. 켈트(Celtic)어의 영향은 이중적이다. 첫째 제국 분열 이전의 라틴어 그 자체에 미친 영향. 예를들어 chemise ‘shirt’, cheval ‘horse’; 그리고 두번째 보다 지역적으로 Gaul(갈리아)에 미친 영향—chêne ‘oak’, grève ‘river bank’,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strike’(파업). 게르만의 영향은 로마 갈리아의 프랑크인의 정복의 어쩔수없는 귀결이었다. 많은 일상어들이 이런 게르만적 재원으로부터 파생된다: guerre ‘war’, blanc ‘white’, joue ‘cheek’. 르네상스 이후로 프렌치어(French)는 자기 자신의 모국어로부터,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라틴어로부터, 수 많은 단어들을 취했다 근원적으로 학습되든 또는 반(semi, 半) 정도로 학습되든, 이로부터 결과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핵심 어휘 의해 경험된 음성학적인 변화들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예를들어 facile ‘easy’, nature, imaginer ‘to imagine’, photographie. 특별히 흥미로운 것들 중에 동일한 라틴어 어근(etymon, 語根)의 ‘대중적인’ 파생어와 ‘교양적인’ 파생어를 거기에서 지니는 중복(doublets, 重複)어들이다. 그래서 라틴어 FRAGILE는 frêle와 fragile 양자를 제공한다(영어 ‘frail’과 ‘fragile’와 비교).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언어들로부터의 차용어들, 특히 프렌치어 낱말이 그것에 이용될 수 없는 문화적인 또는 자연적인 ‘별난 것’(exotica)이 있다(예를들어 sonnet,

ténor, chocolat, canoë). 19세기와 20세기에서의 주요한 재원은 의심할것도 없이 영어, 특히 스포츠와 패션의 영역에서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기술(Technology, 奇術)과 재정과 같은 그런 영역에서의 영어였다. 흥미롭게도 이런 차용어들 중 많은 것이 Norman 기간 또는 그 이후 동아에 프렌치어로부터 영어에 그 자체 흡수됐던 단어들로 구성된다. 예를들어 ticket, tunnel, train, sport. 최근에 영국어법(Anglicisms)의 물결들이 예측가능하게 재반응을 일으켰으며, 그리고 적절한 토착적 대안들을 찾아 조장하는 임무를 띠었던, 1957년에 설립된 'Office du vocabulaire français'는 몇몇 성공을 거두었다. 역사적 증거는 실제 값의 차용어들은 최소한도 그들이 이름을 붙인 것들인 한 살아남았을 것인 반면 너무 열망하여 빌려와진 것들은 곧 주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세계 주요 언어로서의 프렌치어의 오랜-기간 (term)의 전망과 관련하여, 빌려움 보다 더 손상을 끼치는 것은 자신의 화자들의 꾸준히 변하는 의사소통적 필요에 직면하여 급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its capacity to evolve)의 어떤 감소일 것이다(Martin harris).

## 차례

- 1) 들어가기 ..... 3
- 2) 역사 ..... 6
- 3) 음성학 ..... 13
  - 3-1) 알파벳 ..... 18
- 4) 정서법 ..... 19
- 5) 형태론 ..... 20
- 6) 구문론 ..... 24
- 7) 어휘 ..... 27

## 그림 도표 차례

- 1) 행정지도 ..... 1
- 2) 현대언어지도 ..... 2
- 3) 중세프랑스어방언경계들 ..... 4
- 4) 모음소들 ..... 16
- 5) 자음소들 ..... 17
- 6) 알파벳 ..... 19
- 7) 인칭대명사들 ..... 22